

* 마을사 *

향산리·鄕山里

도고면의 한 마을로 바깥피미, 나뭇골, 가향리라는 이름의 작은 세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옛날에는 향산리를 용호원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사신과 우리나라 영접사가 서로 만나 의논하는 집 이름을 용호원이라 하였다하여,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하며 지금은 줄여서 용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구수는 82호 마을이며, 전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수박 쪽파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향산리는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흑암리, 가향리, 용산리, 와동 일부를 병합하여 가향과 용산의 이름을 따서 향산리라 하여 향산리라 하여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향산리 위치도>



⊗ 바깥피미 마을(향산리)

향산리는 도고면의 한마을로 작게는 바깥피미, 나뭇골, 가향리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흔히 바깥피미로 알려져 있다. 용두원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와산리 안피미의 바깥쪽에 있고 썩 치자를 써 치매라 불렀으나 치매→치미→피미로 변하여 바깥피미라 불리게 된것으로 나뭇골은 용산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나무가 울창했던 곳이고, 가향리는 갯이라고도 하며, 이곳엔 냇가가 있어서 냇가공비라고 한다.

<조사당시 향산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위도 36-44-50, 경도 126-53-40인 곳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과 도고를 잇는 도로변에 있는 마을이다. 신창 휴게소를 지나 1.5km 정도 내려오면 도로 양쪽으로 마을이 펼쳐져 있어 지대가 높은 마을이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2) 현 황

인구는 남자 131명, 여자 128명으로 259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82호에 이른다. 주민들 전부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마을의 특산물로는 수박과 쪽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바깥피미마을	259명	131명	128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기타서비스업
바깥피미마을	100%	100%	-

마을 전체 논 면적은 33.5ha과 밭은 14.8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앰프가 구비된 마을회관 1개소와 농악기구들도 보관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바깥피미마을	48.3ha	33.5ha	14.8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바깥피미마을	1개소	1개소	-

성씨별 분포로 볼때, 김씨 16%, 이씨 18%, 남씨 11%, 정씨 10%, 기타성씨 45%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되어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남씨	정씨	기타성씨
바깥피미마을	83호	13호	15호	9호	8호	51호

- 최고령자

바깥피미 마을은 강릉 김씨인 할머니가 계신데 98세이시다.

3) 자연경관

온양에서 예산 방향의 국도변에 위치찬 마을로서 와산리에서 발원하는 봉심천이 있으며, 마을 입구에서 보면 도로 우측은 바깥피미, 좌측은 나뭇골이며, 바깥피미를 지나 좀 동떨어진 마을이 가향리이다. 나뭇골 뒤는 안피미와 이어진 봉산이 있으며, 그 앞으로 마을의 집들이 모여 있다. 나뭇골 쪽은 대부분 산과 숲인 반면 바깥피미와 가향리는 들이 많다.

4) 마을 변천 과정

신창군 남하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흑암리, 가향리, 용산리, 와동 일부를 병합하여 가향과 용산의 이름을 따서 향산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서씨가 바깥피미 지금의 교회 자리에 터를 잡았고 살았으나 지금은 김씨와 이씨가 주를 이룬다. 마을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성씨는 현재까지 5대째 살고 있는 정씨와 서씨이며, 마을의 형성시기는 서기 1850년경 약 150년전부터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6) 지 명

·나뭇골 : 용산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나무가 울창했던 곳

·가향리 : 갯이라고도 하며 이곳엔 냇가가 있어서 냇가동비라고도 함.

·용 원 : 향산리에서 가장 으뜸가는 마을. 일명 용호원 옛날엔 이 용호원에서 여행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왔으며, 예전에 이곳에 도고 면사무소와 경찰지서가 있었는데, 해방후 신언리의 궁밭으로 옮겨졌음.

·면 터 : 도고 면사무소의 옛터

·벌가향리 : 용호원 서쪽 들가운데에 땅이 비옥하여 살기좋은 마을이라 함.

·빠드리 : 마을 전체의 들. 부분적으로 향들, 원너머라는 들로 나뉨.

·배나무골 : 배가 많이나서 배나무골이라 함.

·각 골 : 갯이 서쪽 즉, 시전리의 산밑에 마을이 뿔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각골이라 함.

- 거문배 : 용호원 남쪽에 있는 마을. 뒤에 검은 바위가 있음.
- 검은바위 : 거문배에 있는 바위로 빛이 검고 병풍같이 생겼으며 가운데가 갈라졌는데 벼락을 맞은 바위라서 벼락바위라고도 하며, 병풍바위라고도 한다. 이 검은 바위에는 조선의 사흘먹을 양식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석수들이 얼마전 이 바위를 캐갔다고 함.
- 갱이다리, 큰다리 : 향산리에 있는 두개의 다리
- 맹산 : 용산리 동쪽에 있는 산. 맹씨의 묘가 있다 함.
- 흑암산 : 거문배 뒤에 있는 산. 높이 87m. 거문바위가 있음.
- 원너머 : 용호원 서쪽 너머에 있는 들.
- 바깥피미 : 용원 북동쪽에 있는 마을. 와산리의 안피미의 바깥쪽에 있으며, 원래는 썰치자를 써서 치매라 불리었으나 치매-치미-피미가 되었다고 함. 용원 향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전에 용호원이 도왔으며, 도고면 사무소와 경찰지서가 있다가 해방 후에 신언리의 궁밭으로 옮기었음.
- 봉산교 : 도고온천을 연결해 주는 다리.
- 봉산천 : 와산리에서 발원하여 도고천을 지나 무한천으로 흘러가는 내
- 가향교 : 향산리에 있는 다리. 신창읍에서 예산읍으로 통함.

7) 전 설

十 거문바위에 관한 전설

옛날 거문바위 터에 큰 부자가 살았다 한다. 그 집은 손님이 굉장히 많이 드나 들어 그집 며느리의 손에 물 마를날이 없이 치닥거리를 하였다 한다. 그러던중 어느날 스님이 그 집에 들렀을때 며느리가 묻기를 "스님, 어떻게 하면 제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편히 살수 있겠습니까"하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이곳으로부터 산길을 뚫어 석당리로 길을 내시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 스님 말대로 길을 뚫었다 한다. 그런데 그길이 완성될 무렵에 그집은 망해버리게 되었고, 집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검은바위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바깥피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제사나 놀이는 없었지만, 연반제와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어 애경사시에 협력하여 서로 돕고 단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기독교로서 향산감리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70명이 되고 불교사찰은 없다.

11) 공장현황

향산리에는 내열기관 용전장품에 관련된 신안상사(주)가 있다.

力 신안상사(주) : 향산 산 43-1, 허가일 94.3.17, 면적 13,610 종업원수 9,

내열기관 용전장품

12) 마을의 특성

향산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로 예전에 용호원(여행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와 주는곳)이 있었으며, 도고면사무소와 경찰서가 있다가 지금은 궁밭으로 옮겨 갔고, 완전한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로 수박과 쪽파를 심고 있으며, 농촌마을로 정이 넉넉하고 애경사시 서로 돕는 상부상조하는 마을이다.